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	http//www.mke.go.kr
자료문의 : 아주협력과장 제경희(2110-5371), 오종희 사무관(2110-5375)	

스리랑카, 경제허브로의 비상에 한국이 함께 한다.

- 지경부 박영준 차관, 제1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(COP 18) 유치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스리랑카 방문**(2.23)** -

□ **제1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(COP 18) 유치***를 위한 **대통령 특사**로 스리랑카 콜롬보를 방문중인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은,

○ 2.23일 스리랑카 대통령, 경제개발부장관, 상공부장관, 외교부장관, 환경부장관 차례로 만나 **한국의 COP 18 개최 필요성**을 설득하고,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함

* '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시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동시에 '12년 제1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(COP18) 유치의사를 표명, 유치경쟁중임

□ 이번 스리랑카 방문은 **지식경제부 최초의 고위급 방문**이라는 점에서 스리랑카 정부의 높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,

○ COP 18의 **한국 유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**을 도출하고,

○ 내전종식 이후 복구사업에 **한국기업의 참여**를 희망하는 스리랑카 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함으로써 **우리기업의 스리랑카 진출확대**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

□ 우선 박차관은 **마힌다 라자팍세 대통령을 예방**하여, COP 18 한국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**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**하고, **라자팍세 대통령의 한국 지지를 거듭 요청**함

□ 또한 박차관은 **바실 라자팍세 경제조정부 장관, 바디유딘 상공부 장관, 야파 환경부 장관, 피리스 외교부 장관**을 차례로 만나, **COP 18 한국유치 지원**을 요청하고 **스리랑카의 서남아 경제허브로의 비상**을 위한 양국간 다양한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함

○ **(COP 18 유치)** 그간 한국이 녹색성장을 국정목표로 삼고 국제사회에서 **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십,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(GGGI)** 설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등 한국이 **COP 18 개최의 최적국**임을 강력히 설득함

○ **(인프라 건설 참여)** 스리랑카는 **30년간 지속**되었던 **내전이 종식**되고, **라자팍세 대통령 2기 임기 시작**과 함께 **북동부 내전지역에 대한 복구**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임

- 스리랑카는 우리기업에 대한 **우호적 인식**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**적극 참여를 요청**해 온 바, 정부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**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진출여건**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

○ **(IT분야 협력)** 스리랑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**'e-Sri Lanka 중기 로드맵'** 등 정보화 사업에 양국간 협력 확대를 약속함

* e-Sri Lanka 프로그램: ICT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하여 ICTA설립 (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gency), ICT를 통한 현대정부·사회 구축

○ **(발전소 수주 지원)** 박차관은 한국의 전력산업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홍보하고, 스리랑카의 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

○ **(인도양 석유탐사 협력)** 스리랑카는 인도양 석유자원 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있어 동 분야에서의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바, 스리랑카는 적극 지원의사를 표명함

○ **(신재생에너지 협력)** 박 차관은 마나르 Island 풍력단지 조성 등 스리랑카 신재생에너지 조달계획에 한국기업들의 참여지원을 요청한 바, 스리랑카는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함

* 스리랑카는 '15년까지 총 전력의 10%이상을 신재생 분야에서 조달할 계획

□ 한편, 박차관은 **양국 기업인 100여명**이 참석한 무역투자상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노고를 격려함

○ 박차관은 기조연설에서 "서남아 해상·항공 물류운송의 허브를 목표로 스리랑카 정부가 추진중인 함반토타 항구개발, 마탈라 공항 건설 등 다양한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"임을 강조함